

부산을 선택한 유학생의 현황과 Needs

동의과학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390명 사례로 본 부산 대학의 공동과제

85.1%

부산이 첫 유학도시

56.7%

부산 취업지역 1순위

48.2%

장기정주 의향 긍정

먼저, 이 자료는 이렇게 봐주십시오

부산 전체를 대표하는 통계가 아니라, 한 대학의 현장 사례에서 공동과제를 찾는 자료입니다.

01

단일 대학 사례

동의과학대학교 재학생 390명의 응답입니다.

02

비교보다 흐름

부산 선택 → 취업 선호 → 정주 의향”의 연결을 봅니다.

03

맞춤 지원 신호

국적·학과·성별 차이는 원인 단정이 아니라 지원 설계의 신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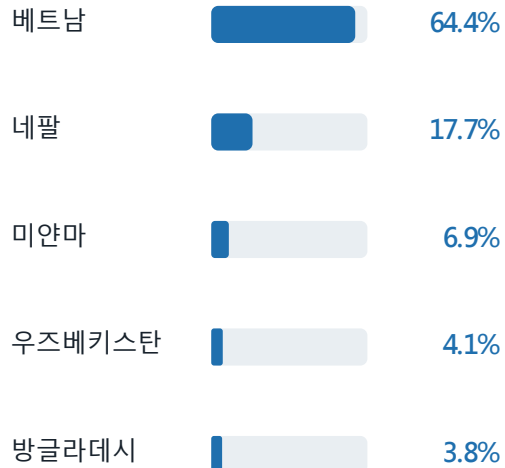
오늘의 핵심 질문

부산을 선택한 학생이 졸업 후에도 부산을 선택하게 하려면?”

응답자 390명, 어떤 학생들이인가

국적과 학과 구성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어, 집단별 수치는 표본구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적



기타 3.1% 포함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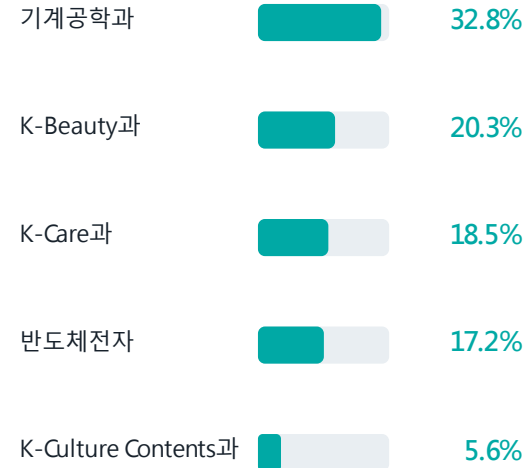
58.7% 40.5%

여성 남성

58.7% 40.5%

응답거부 0.8%

학과



기타 학과 5.6%

TOPIK

TOPIK 없음 46.9%
n=183

TOPIK 1~2급 25.9%
n=101

TOPIK 3급 이상 27.2%
n=106

TOPIK 3급 이상은 27.2%
→ 취업 준비의 핵심 과제

대부분은 한국과 부산을 '첫 선택' 으로 경험했습니다

부산은 학생에게 유학의 출발점이자, 졸업 후 취업 후보지입니다.



부산은 이들에게 잠시 거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첫 유학 경험과 향후 취업 선택이 겹치는 중심 도시입니다.

부산은 취업지 1위지만, 장기정주 확신은 절반입니다

선호를 실제 취업과 정착으로 바꾸는 마지막 연결이 필요합니다.

56.7%

부산을 취업지역 1순위로 선택

51.3%

“졸업 후 부산 취업” 긍정

48.2%

“부산 장기정주” 긍정

8.5%p

1순위 선호와 장기정주 긍정의 차이

장기정주 의향 응답 분포

48.2%

26.4%

25.4%

● 긍정 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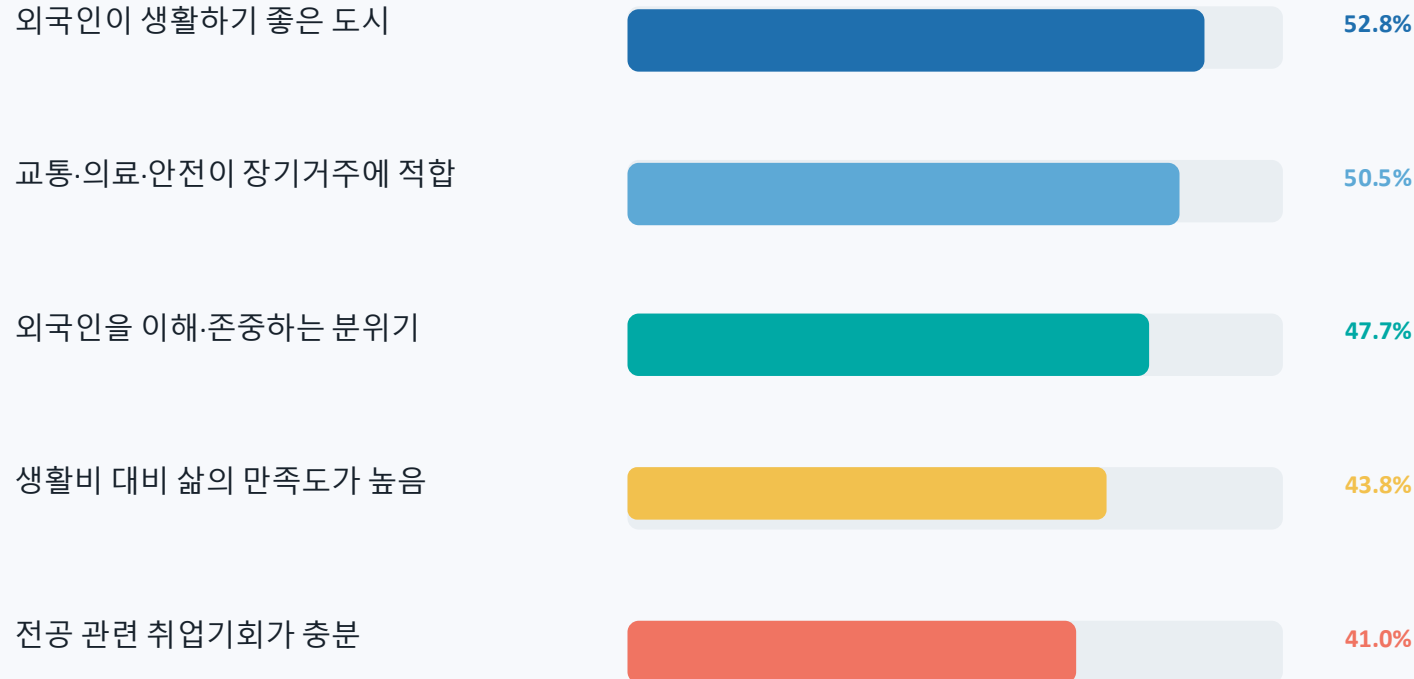
● 보통 26.4%

● 부정 25.4%

핵심: “부산이 좋다”는 선호는 높지만, “부산에 남겠다”는 결정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살기 좋은 부산’ 보다“ 일하기 좋은 부산’ 평가가 낮았습니다

아래 수치는 4~5점으로 긍정 응답한 비율입니다.



해석

부산의 생활 기반은
절반가량이 긍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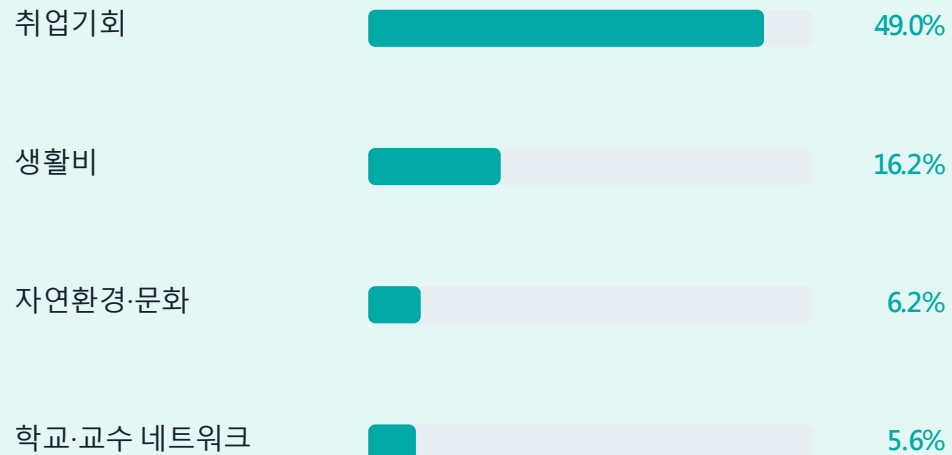
그러나 전공과 연결된
취업기회 평가는 41.0%로
가장 낮았습니다.

생활 인프라의 강점을
지역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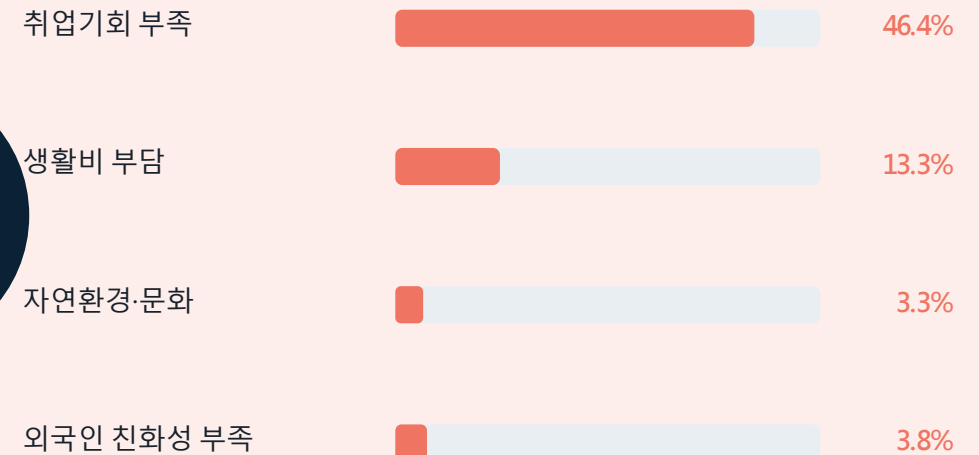
취업은 부산을 남게도, 떠나게도 하는 1순위 요인입니다

1~3순위 문항 중 1순위" 응답만 비교했습니다.

남고 싶은 이유



떠나기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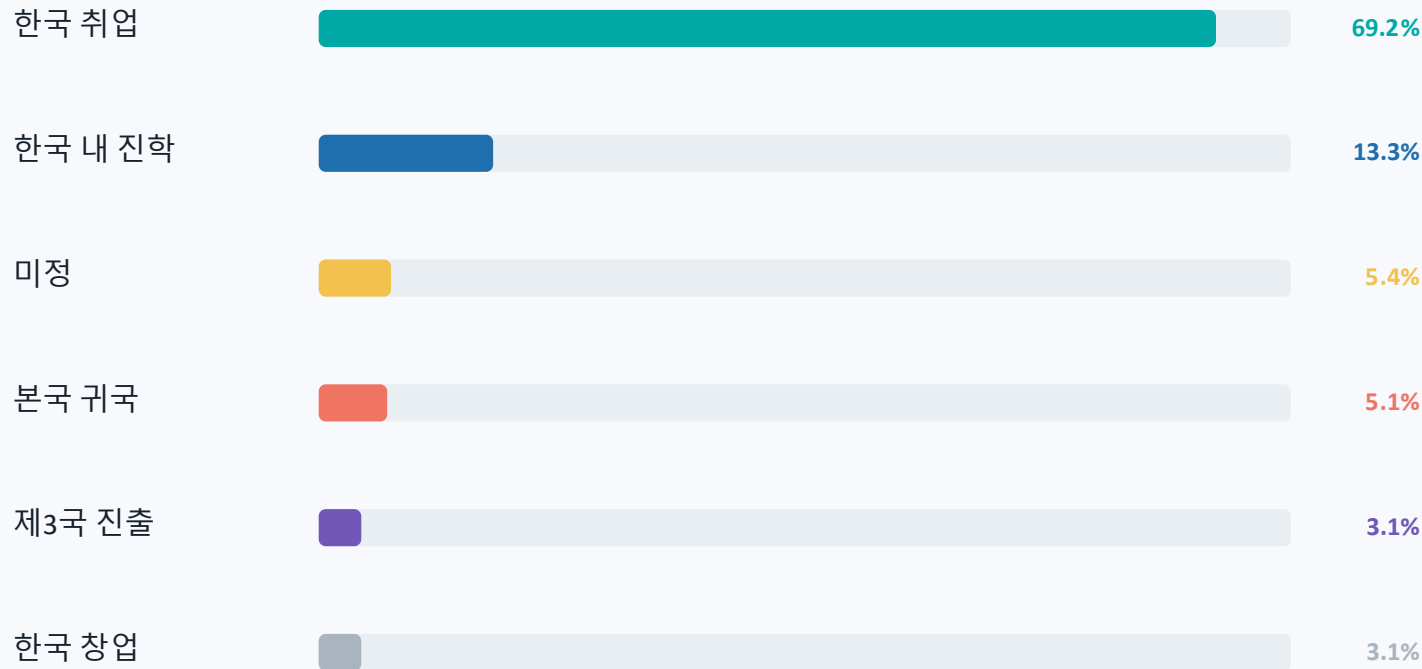


같은
주제
취업

취업기회가 보이면 남고, 보이지 않으면 떠납니다.

졸업 후 10명 중 7명은 한국 취업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한국 취업·진학·창업을 합치면 85.6% 입니다.



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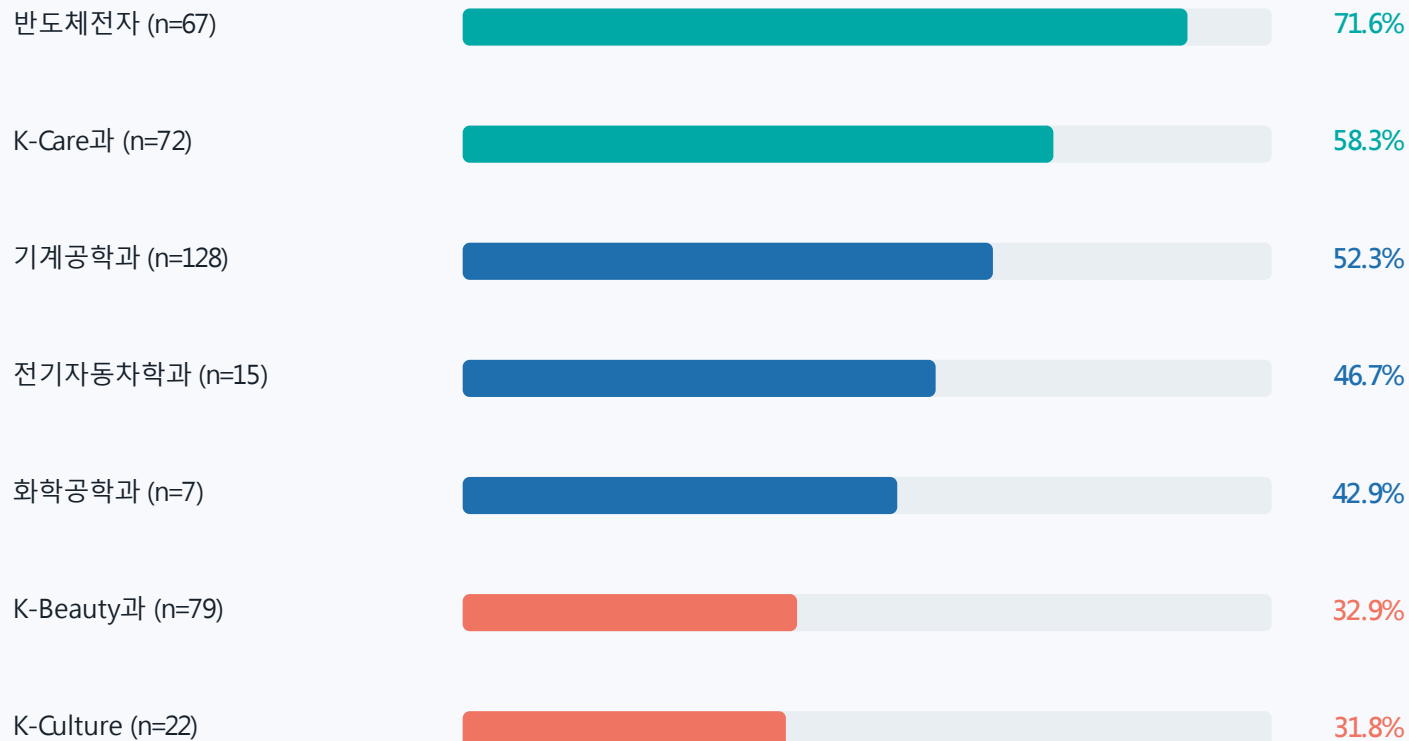
한국 취업·진학·창업

부산이 이 인재를
지역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시
간은
“재학 중” 입니다.

※ 한국 취업 69.2% + 진학 13.3% + 창업 3.1%

학과에 따라 부산 취업 의향이 크게 달랐습니다

졸업 후 부산에서 취업하고 싶다"에 4~5점으로 답한 비율입니다.



시사점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과를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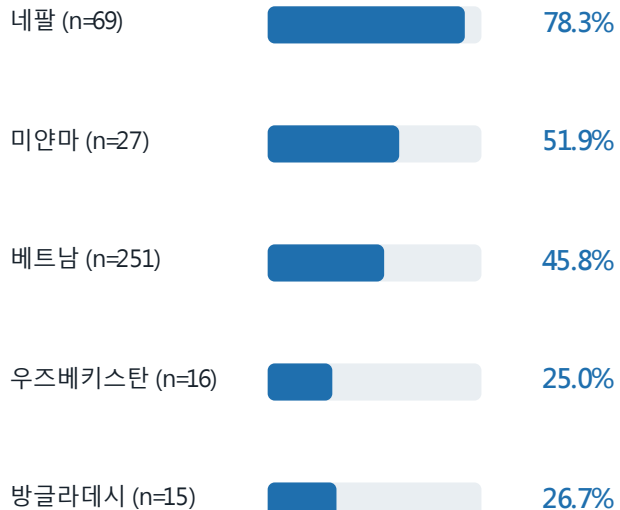
- 지역 산업과 전공의 연결 정도
- 자격증·면허 요건
- 현장실습·인턴십 접근성
- 전공별 외국인 채용 관행

공통 지원 + 전공 맞춤 경로가 필요

국적·성별·한국어 수준도 서로 다른 경로를 보여줍니다

단순 비교이며, 학과와 국적 구성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적별 부산 취업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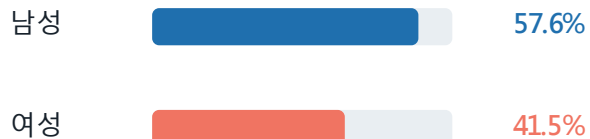
※ 집단 규모가 작은 국적은 방향성 중심으로 해석

성별 단순 비교

부산 취업 긍정



장기정주 긍정



TOPIK 수준

부산 취업지역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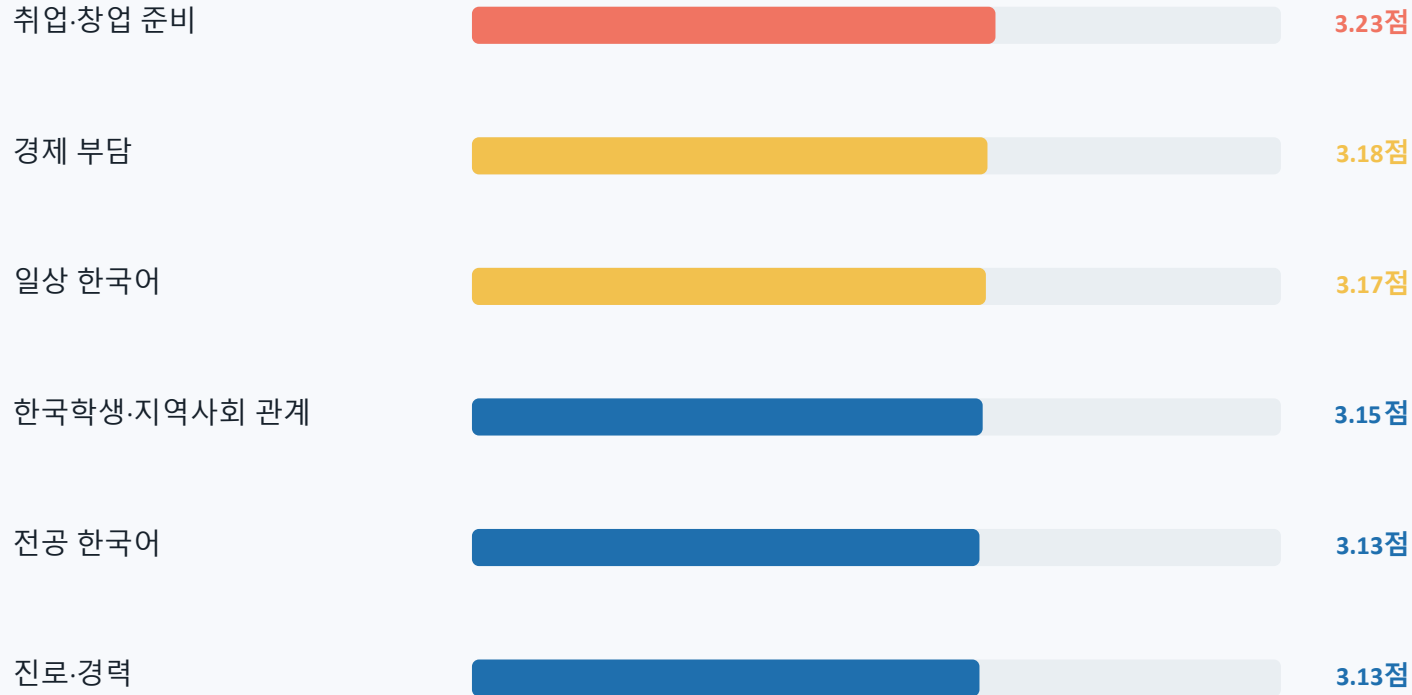


졸업 후 한국 취업 계획



학생의 어려움은“ 취업 준비-경제-한국어’ 순서입니다

5점에 가까울수록 더 어렵다고 느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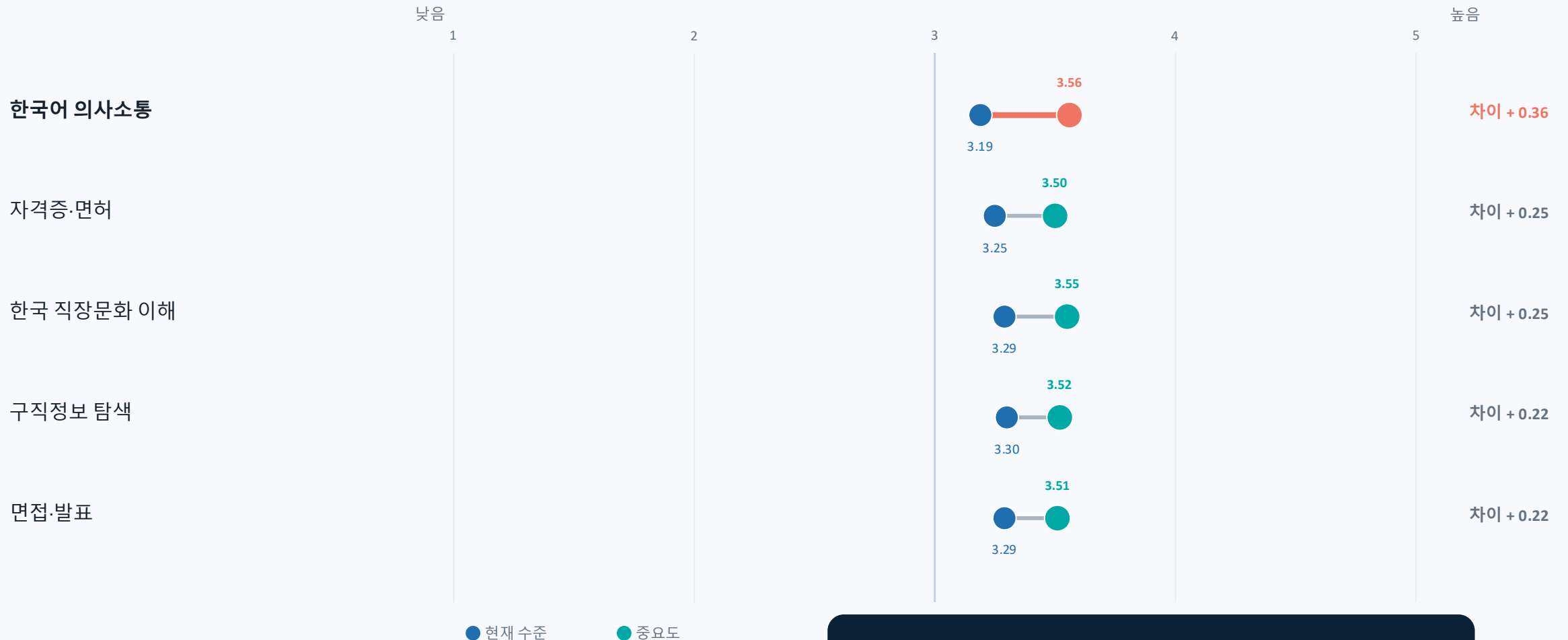
가장 높은 3가지

- 1 취업·창업 준비 3.23점
- 2 경제적 부담 3.18점
- 3 일상 한국어 3.17점

대학 지원 체감은 대부분 3.3~3.5점
→ 지원이 있어도 어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취업 준비의 가장 큰 간격은 한국어였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과 “현재 나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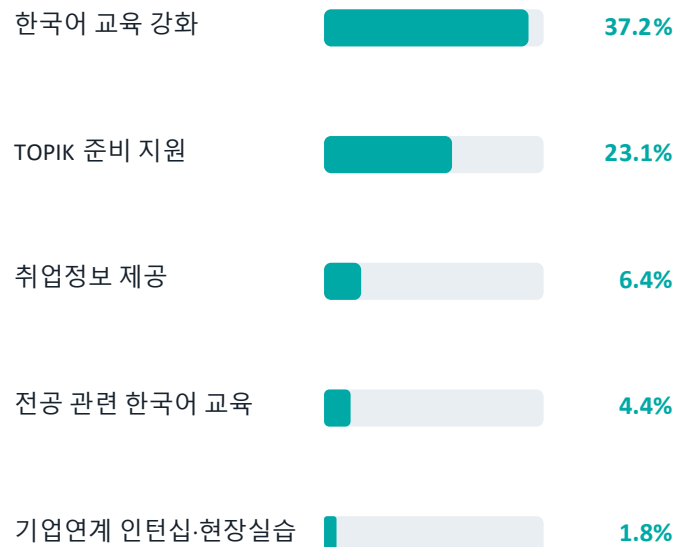


한국어는 학업 지원이 아니라 “취업 인프라”입니다.

학생의 Needs는 두 축으로 모였습니다: 한국어와 취업 연결

순위 선택, 항목별 필요도, 자유의견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우선순위 1위 선택



항목별 필요도 상위



자유의견에서 반복된 주제

한국어·TOPIK 32.8%

취업·기업연계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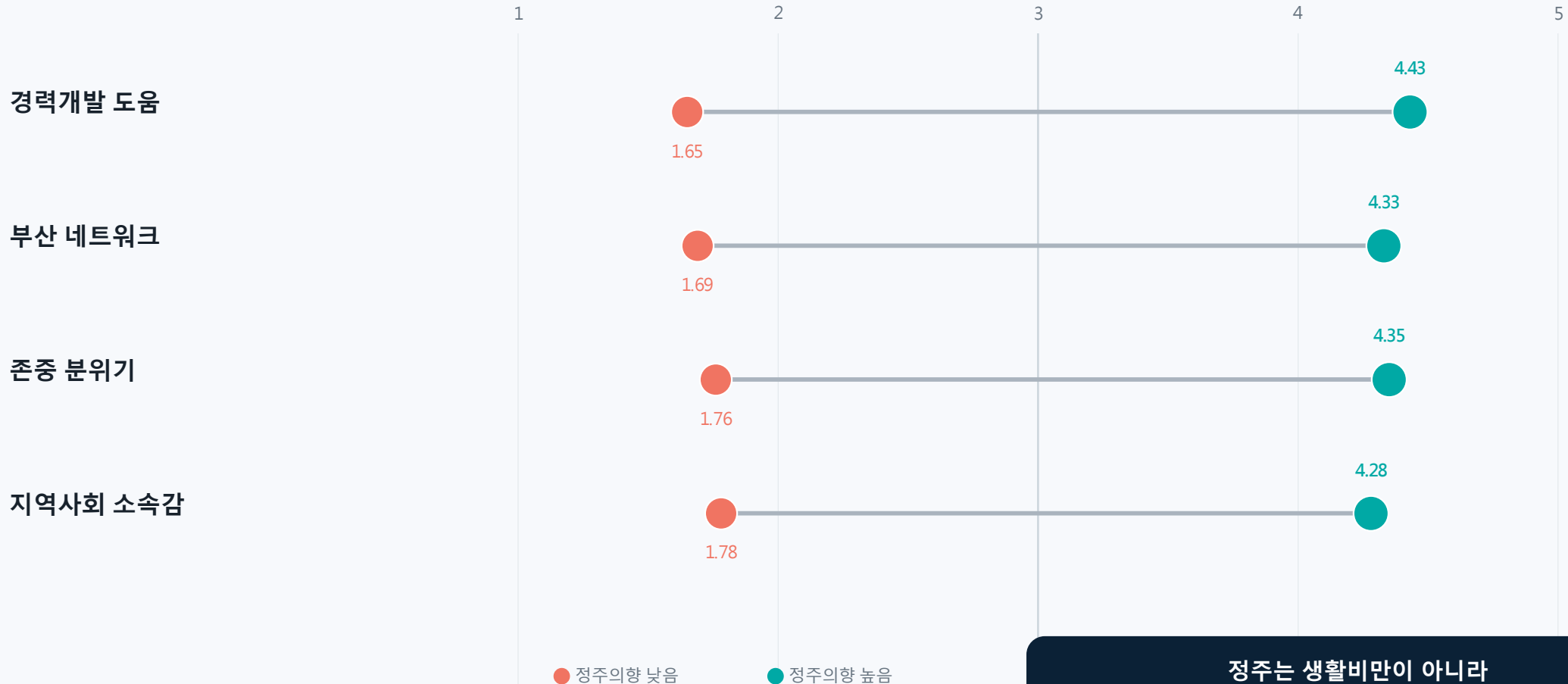
비자·체류 16.7%

장학금·생활비 11.5%

※ 자유의견에 해당 주제가 포함된 응답자 비율(간이 코딩)

부산에 남고 싶은 학생은 “경력과 관계” 를 함께 높게 평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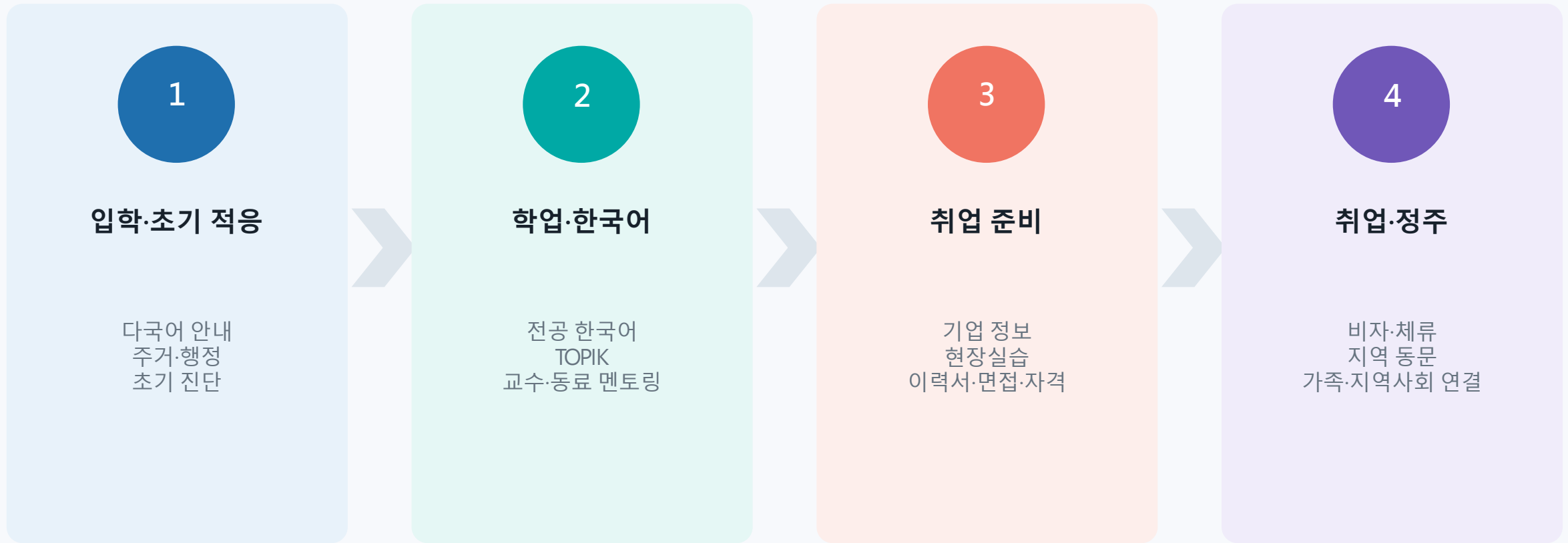
장기정주 의향이 높은 집단(4~5점)과 낮은 집단(1~2점)의 평균 비교입니다.



정주는 생활비만이 아니라
일자리·관계·존중이 함께 만드는 결과입니다.

부산 대학의 공동과제: 입학부터 정주까지 한 경로로 연결

학생 지원이 부서별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학생에게는 네 단계가 하나의 경험입니다. 대학과 부산도 하나의 경로로 보여야 합니다.

대학 간 공동사업으로 효과를 키울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이 따로 만들기 어려운 인프라는 부산 단위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01 공동 한국어·TOPIK 과정

수준별·전공별 수업을 대학 간 공유



02 부산형 인턴십 공동 풀

전공별 기업·현장실습 자리를 공동 발굴



03 외국인 채용정보 플랫폼

채용·비자·자격요건을 한 화면에서 제공



04 비자·체류 원스톱 클리닉

대학-부산시-전문기관 정기 상담



05 지역 동문·멘토 네트워크

선배-기업-지역사회 연결을 대학 간 확장



다음 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 90일 실행안

작게 시작하고,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결과를 함께 추적합니다.



공통 성과지표: 프로그램 참여 → 구직 지원 → 면접 → 취업 → 부산 체류

결론

부산은 이미 선택받고 있습니다.

이제“ 남을 이유” 를 연결해야 합니다.

85.1%

부산이 첫 유학도시

56.7%

부산 취업지역 1순위

48.2%

장기정주 의향 긍정

유치보다 중요한 다음 단계는“ 취업과 정주 연결’ 입니다

부산 대학이 함께하면, 학생의 선택이 지역의 인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